

양돈산업의 선진화 —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양돈업계는 어수선하기만 하다. “유알(UR)”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생긴 놈인지는 몰라도 “우는 아이에 호랑이” 같은 놈인가? 이 놈이 한바탕 설쳐대니 전국의 농민들은 울어대고 정부는 콧감(지원자금)을 마구 뿌려대고 있다. 그런데 “유알”이라고 하는 호랑이는 약아서 “콧감” 정도에는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지 않으니 문제이다.

이제는 막연히 추상적인 말잔치만 하면서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위력있는 무기를 동원해서 호랑이를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차제에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및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볼까 한다.



최진호 소장
(최진호 연구소)

1. 양돈산업의 수익성이 생산정보다는 경영외적인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

그 동안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수익성은 높은 편이었다. 그러다보니 양돈산업이 투기화 되고 양돈경기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해서 비육돈 한 마리의 생산비를 10,000원 낮추기가 쉽지 않은데 경기 변동에 의한 비육돈의 출하 가격은 몇 달사이에 50,000~60,000원씩 변동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관리에 의한 생산성 제고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양돈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농장의 수익성이 비교적 적은 폭으로 안정이 될 때 동일한 출

하가격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높은 수익을 얻게 되면 누구나 합리적인 관리에 주력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농장은 결국 도태될 것이다.

2. 우리의 기술이 크게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사고 방식이 문제이다.

흔히 우리 나라의 양돈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것은 비록 양돈 기술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사정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양돈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 사양가들의 양돈 기술이 다른 나라 사양가들의 기술보다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국 사람들(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을 접촉해 보면 일반적으로 그들은 매사에 원칙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66

사실 우리나라 사양가들의 양돈 기술이 다른 나라 사양가들의 기술보다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99

느낀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성급하다.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면 사소한 일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느니 보다 적당히 생략해 버린다. 따라서 일의 진행은 매우 빠르지만 그 결과는 성수대교 사건과 같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장들이 기록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농장의 기록유지는 농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기록없이 농장을 관리하는 것은 장님이 지팡이 없이 길을 가는 것 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3. 하드웨어(Hardware)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Software)를 중시해야 한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농장에서 필요한 자원에는 땅, 가축, 축사 및 설비, 사료, 물 등이 있다. 이런 자원들은 공간을 차지하며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드웨어(hardware)라 한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드웨어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하드웨어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생산성도 발휘할 수 없다. 하드웨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이 모든 것을 관리 통제하는 경영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 후자의 것들을 우리는 소프트웨어(software)라 한다.

우리 주위에서는 흔히 하드웨어만 중요시 하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우수한 하드웨어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우수하

지 못하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화려한 최신형 시설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장의 모든 요소들이 올바르게 관리, 통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4. 자립의지(自立意志)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축산인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돼지가 과잉생산되어서 가격이 폭락하면 우리는 정부에 그 책임을 돌리고 지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양돈업도 일종의 기업이며 모든 기업은 예상되는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는 것이고 그 예상이 빗나갈 때에는 손해를 보는 위험부담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양돈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결정에서부터 규모를 늘일 것이냐 줄일 것이냐 또는 어떠한 사람을 채용하며 어떠한 시설을 채택할 것이냐 등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며 그 결과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거나 모두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기는 과거에 축산물의 수급조절이라는 목적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향이 있

었고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을 때 양축가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양축가들은 정부의 시책에 순응한 결과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정부에 항의할 명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의 운용에 너무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어떠한 산업이든 발전하는데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그 자체가 장애가 될 뿐이다.

최근에 우리나라 축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자금을 풀어서 시설 개선 및 축산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자금 지원이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많다. 많은 경우 축산에 대한 큰 애착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한다니까 우선 자금이나 받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 중에서 몇 농장 또는 몇 개의 단지가 성공할는지 매우 걱정된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은 자립의지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착

실하게 농장을 키워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장래를 과연 누구에게 기대해야 할 것인가? 정부의 자금지원에 미련두지 않고 자기 힘으로 착실하게 농장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구체적인 계산도 없이 일시에 대규모 농장을 건설하는 사람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후자의 경우가 많아지면 전자의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5. 경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축산은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업종이다. 그리고 농장 하나 하나가 독립된 경영 주체이며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인 것이다. 따라서 농장의 관리자는 기업의 경영자이며 성공적인 농장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는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농장 경영에도 다른 기업의 경영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영의 기본원칙이 적용된다.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계획을 수립하는 일, 이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인적 구성 및 운

영 체계를 조직하는 일,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일을 지휘하는 일, 여러 가지 발생하는 사건들을 평가하고 대응하며 통제관리 하는 일들이다. 이러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활동을 통해서 투자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이다.

6. 도축시설의 후진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몇 가지 문제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도축시설의 후진성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후진성이란 시설이 구형이라든지 자동화가 덜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체계가 너무나 비위생적이라는 것이다. 양돈산업

의 세계화를 논하고 돈육의 대일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도축장은 위생적인 배려가 너무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세계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하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줄 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긴 말은 생략한다. 

농장의 번영을 추구하고 변함없는 서비스 정신으로 봉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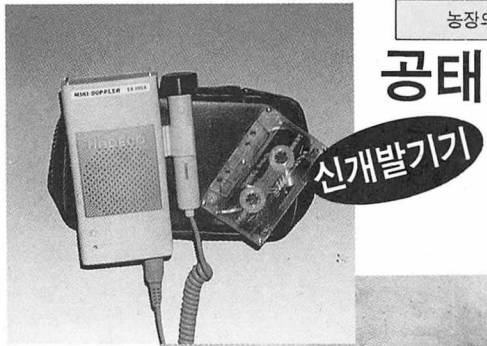
공태모돈, 0%에 도전한다!

초음파 임신진단기

미니도플러 ES-100X

♣ ES-100X의 특징 ♣

- ◆종부후 18일령부터 임신판정(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함)
- ◆태아로 영양공급을 하기 위한 모돈의 중자궁 동맥 혈류음을 청취하여 임신 여부를 판정
- ◆건전지(1.5V 4개) 작동으로 유지비가 적게 듦 (1개월 이상 사용가능)
- ◆본체에 내장된 스피커를 통하여 혈류음을 공동 청취가능
- ◆모돈의 후지앞 배부분의 삼각부위에서 혈류음을 청취함
- ◆본 제품과 함께 공급되는 임신한 모돈의 혈류음 녹음테이프를 청취한후 사용자가 즉시 현장에서 응용·진단할 수 있음



신개발기기

■ 전안대리점 대원가축약품
(0417) 55110487
■ 홍성대리점 천성농수산
(0451) 334199
■ 부산대리점 대원가축약품
(051) 51217701

신용카드 할부구매가능

수입판매원

우애무역상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즉시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72-70(연남빌딩 506호)
청량리우체국 사서함 222
Tel : (02)766-7806(대) Fax : (02)745-7248
휴대폰 : (011)271-9992

대리점 모집중